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교육의 저활용 : 거시적 차원의 설명

이미정*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1. 연구배경

많은 여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교육과 경제적 이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잘 관찰되고 있다(〈표1〉 참조). 비록 〈표1〉에 제시된 기간동안 감소하기는 했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수입의 차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한국과 많은 사회경제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에서 교육수준별 수입(earnings) 차는 주목할 만하다(〈표2〉 참조).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보상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가족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고 이것은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온 나라가 대학입시로 떠들썩하다. 입학시험문제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며 학생자녀를 둔 일반가정에서는 그들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로 써야만 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설 교육기관으로 보내서 자녀들이 학교의 정기적 시험이나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애를 썼다. 한국에서 대중교육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설 교육기관은 번창하여 왔다. 고등교육에 대한 한국 학생들과 부모의 강한 열망은 미래의 직장에서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표1〉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고교졸업자를 기준으로 한 교육수준별 수입의 비 (1971~1986)

교육수준	1971	1976	1979	1983	1986
중졸 이하	62	59	66	73	78
고졸	100	100	100	100	100
초급대졸	~*	246	224	192	166
대졸	284	389	350	312	286

자료: Shin(1990: 40).

주: *는 초급대졸업자가 대졸자와 합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 한국과 대만간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비교

중등학교·초등학교 비	1975	1980	1985	1990
한국	175	145	134	119
대만	147	123	119	112
대학교·초등학교 비				
한국	375	332	303	221
대만	236	194	214	179

자료: Brinton et al. (1995: 110).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교육과 수입간의 밀접한 관계가 남성의 경우에서처럼 여성에게서도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연구해 볼 만하다.¹⁾ 비록 뒤쳐져 왔기는 하지만, 해방 후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엄청나게 상승해 왔다(Shin, 1990). 아들교육에 대한 관심에는 못미치지만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딸의 교육에도 크게 관심을 보인다. 남성에게서 교육과 수입간의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는 것처럼 여성에게서도 그것이 보여진다. 실제로,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크다(〈표3〉 참조, 김영화, 1988: 135). 남성교육의 경우보다 높은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Psacharopoulos, 1985: 588).²⁾

투자수익률에 대한 분석(the rate-of-return analysis)은 일하는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한 시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여성의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과 가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전생애(the lifetime)에 걸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과 비교하여 볼 때 낮다. 그렇

- 1) 여성교육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교육으로부터 직접적 보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서 돌아오고, 간접적 보상은 경제적 수입이 많은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직접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
- 2) 많은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집단에 관한 임금 회귀분석 결과를 보며, 여성의 교육 회귀계수가 남성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 회귀계수라는 것은 교육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임금의 한계증가(marginal increase)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 회귀계수가 더 크다는 것이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기 때문에, 이전의 투자수익률 분석은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에 대한 수익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이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비록 다른 개도국에서도 교육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간의 선형적 정(+)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표4〉 참조), 여타 개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경우는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않다.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게 되었다.

〈표3〉 한국 남녀의 월수입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 비교(1982) (단위: 원)

각 성별내 비교	여성		남성	
	월수입	비(ratio)	월수입	비(ratio)
중졸 이하	105,900	100	203,207	100
고졸	135,404	128	243,983	120
전문대졸	218,659	207	310,274	153
대졸	319,732	302	461,551	227

성별간 비교	여성		남성	
	월수입	비(ratio)	월수입	비(ratio)
중졸 이하	105,900	100	203,207	192
고졸	135,404	128	243,983	230
전문대졸	218,659	207	310,274	293
대졸	319,732	302	461,551	436

자료: 김수곤·심경옥(1984: 41).

주: 〈표1〉과 〈표3〉을 비교해 보면, 〈표1〉의 경우 학력별 임금차가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두 표가 서로 다른 자료(data)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수곤·심경옥의 표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근거한 반면, 신(Shin)의 경우는 전국가구조사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4〉 개도국에서 교육수준별 비농업부문 노동시장 참여율 (단위: %)

국가명	무교육	초등학교	중등학교I	중등학교II	초급대	대학교
멕시코(1976) ^a	22.0	24.0	34.0	37.0	59.0	63.0
필리핀(1965) ^a	42.0	30.0	21.0	30.0	53.0	77.0
칠레(1964) ^b	33.3	31.8	e	26.0	f	61.6
이집트(1963) ^b	8.9	2.9	e	24.4	f	70.5
터키(1969) ^b	3.0	4.3	e	13.3	f	69.4
베네수엘라(1971) ^c	10.6	12.4	17.6	47.9	f	41.3
코스타리카(1967) ^c	7.3	15.7	20.2	29.1	f	74.7
에콰도르(1967) ^c	25.4	10.5	13.7	41.4	f	43.5
한국(1970) ^d	27.7	30.7	27.1	19.1	25.1	18.9

자료: ^a Smock(1981: 226), ^b Youssef(1974: 58), ^c Pecht(1978), ^d Park(1990: 119).

주: e 중등학교I 수준과 중등학교II 수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음.

f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자가 같이 분류되었음.

1)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 전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낮은 이유를 거시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여성의 교육과 경제적 수익에 관한 대부분의 미국연구는 미시경제학이론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적은 현상은 이 미시경제학이론으로는 잘 설명되고 있지 않다. 한국여성 전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교육에 대한 낮은 경제적 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기 산업화단계를 연구시기로 삼고 있다. 현재개도국의 경험과 선진국의 과거 경험들이 한국의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미약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육과 경제적 보상

교육의 주된 목적이 미래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이전부터 폭 넓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아니다. 교육이 소수 특권층에게만 제한되었을 때에는 교육 때문에 생기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들 상류층에게는 교육은 현대에서처럼 생산적 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이기보다는 주로 문화적 소비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상류층에게는 하나의 사회적 관례였다. 상류층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지적 훈련을 시키고 가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했다(Goldin, 1992: 17; Warner et al., 1994: 48). 그러나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혜택이 특권층 외의 사람들에게로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을 통한 미래의 경제적 이득이 점차로 중요시되었다. 대중교육(mass education)의 실시 초기에 노동자나 농민들은 의무교육의 규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Smelser, 1991). 왜냐하면, 이들 가정에서는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자녀들의 노동력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교육의 실시 초기에 취학아동들은 자주 결석을 했고, 그 때문에 교육자들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Tsurumi, 1977; Walters and O'Connell, 1988).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의무교육에 대해 심하게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취학연령의 어린이들이 이들 가족에게는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난한 일반인들로서는 자녀의 노동력을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조차도 힘에 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 모두, 대중교육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고 자녀를 일정수준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점차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되어 갔다. 교육이 점차 사회적 상승이동(upward social mobility)의 주요한 통로로 인식됨에 따라서, 가족들은 점차 자녀교육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모두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다. 특히 중류나 하류층 가정에서는 교육을 통해 돌아올 여러 결실 중 물질적 이득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 확산의 초기단계를 비교해 보면, 교육과 경제적 이득간 관계가 19세기 선진국에서보다는 20세기 개도국에서 더 밀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ore, 1976: 83; Fuller and Rubinson, 1992: 16).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교육확산 초기에는 산업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Collins, 1979; Dore, 1976; Smelser, 1991). 이와는 대조적으로,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대중교육의 시행 초기부터 교육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다(Dore, 1976; Fuller and Rubinson, 1992).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은 하루 빨리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서구의 기술과 지식을 즉시 수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토착산업(indigenous industries)과 전통산업현장에서 기술전수(traditional apprenticeships)가 잘 발달되어 오지 않았다(Dore, 1976). 토착산업의 미약한 발달로 대체로 개도국에서 교육은 직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어 왔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상대적 중요성은 투자수익률(the rate of return)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가간 비교연구를 볼 때 선진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훨씬 큰 것이 관찰된다(Psacharopoulos, 1985: 598-600).³⁾

3) 여성교육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

여성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평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며, 둘째,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정도이다.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종종 남성들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왔다(Psacharopoulos, 1985; Woodhall, 1973). 그러나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이 여성교육에 대한 상대적 저투자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Psacharopoulos, 1985; Woodhall, 1973).

여성교육에 대한 전체적 경제보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수익률 외에도 여성 전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정도를

3) 여기서, 투자수익률은 교육과 직업경험을 독립변수로 한 임금함수에서 얻어진 회귀계수로 측정되었다.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참여가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일한다는 것은 아직도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남성에 비해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는 여성교육에 대한 전체적 경제보상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측면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성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논의하는 데에 좀더 적합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

1)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education-specific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교육수준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Bowen and Finegan, 1969; Sweet, 1973; Woodhall, 1973). 그러나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사이의 정(正)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4 참조).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이 둘간의 관계는 다양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선형적 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선형적 정의 관계와 U자 유형의 관계도 발견된다.

첫째,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 선형적 정의 관계는 아르헨티나(1970), 파라과이(1972)에서 나타난다. 이 두 나라에서는 가족의 특성과 여성의 나이를 통제했을 때에도 강한 선형적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Wainerman, 1982). 25-34세의 도시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1967년 코스타리카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교육에 따라 증가한다(Pecht, 1978). 1960년과 1970년 멕시코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Smock, 1981). 그러나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 선형적 관계는 대체로 개도국에서는 드물게 발견되는 편이다.

둘째, 이들 나라에서 좀더 보편화된 형태는 일정한 교육수준을 넘어서면 정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칠레의 경우(1964), 중등교육까지는 교육과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간의 어떤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교육수준까지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약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는 그 수준이 62%에 이른다(Youssef, 1974). 콜롬비아(1967)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발견된다. 대학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은 여성의 노동참여에 대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Youssef, 1974). 이러한 유형은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많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콜롬비아(1971)에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은 아주 적은 반면에 가정부에 대한 수요는 많았다(Angulo and Rodriguez, 1978). 이집트(1963), 시리아(1961), 터키(1969)의 경우 문맹여성들은 초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보다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반면에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문맹여성들보다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참여한다(Youssef, 1974). 수단(1974)에서도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무교육자들보다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초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러하지 않다(Standing, 1982).

셋째, 필리핀(1965), 가나(1970)에서는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에 U자형 관계를 보인다. 이 두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장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Smock, 1981). 에콰도르(1969), 베네수엘라(1971)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발견된다(Pecht, 1978).

마지막으로 싱가포르(1973)에서는 그 양자간의 관계는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결혼여부, 가구소득 및 기타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는 15-24세의 여성에서는 정(正)의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어떤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Fong, 1978).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의나 그 자료의 성격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들 개도국에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범위내에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타 개도국의 교육수준별 여성노동참여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였다. 여타 개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교육수준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표4〉 참조). 한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교육수준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의 사례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

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여성교육과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요인들을 검토해 보겠다.

2) 교육과 고용가능성

미시적 수준에서 교육이 여성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첫째, 교육받은 여성들은 교육을 덜 받은 여성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에 혹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Standing, 1976). 여성은 교육을 통해 더욱 위신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잠재수입(earnings potential)을 증가시키며 일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도 또한 증가시킨다(Cain, 1966; Bowen and Finegan, 1969). 요컨대, 교육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은 미시적으로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교육의 역할이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스몰(Smock, 1981)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미약한 관계를 설명해 보기 위하여 가계소득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수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계소득 수준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스몰(Smock, 1981)은 개발도상국에서 고학력여성의 높은 가계소득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약화시킨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가계소득 수준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교육의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이들 국가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Pecht, 1978 참조). 이것 역시 선진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가계소득 수준이 통제되었을 때에, 교육의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Woodhall, 1973; Sweet, 1973: 130).

3)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전체적 교육수준 향상이 전체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다(Smock, 1981; Standing, 1982). 이에 따르면 이러한 거시

적 수준의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가정 밖에서 여성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Youssef, 1974). 교육의 확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에 대한 전통적 관습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Standing, 1982). 스탠딩(Standing, 1982)은 거시적 수준의 교육의 확산이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교육과 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여성집단의 저교육 수준은 고용자가 여성의 노동생산성과 일에 대한 헌신도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교육기회는 제한된 취업기회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가 대체로 남성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여성노동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 대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은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여성집단의 낮은 교육수준과 그들의 직업훈련 경험이 적은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탠딩(Standing, 1982)은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미약한 관계는 제한된 여성교육 기회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스탠딩의 관점은 고용주가 여성이 가사부담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통계적 차별을 한다는 일반적 견해와 비교해 볼 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개도국에서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가 미약한 이유는 고학력 여성에게 제공되는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도국에서는 대체로 위신이 낮은 육체노동의 기회가 비육체노동의 기회보다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의 기회는 아주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고학력 여성들은 위신이 낮은 직업으로부터 낮은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집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Blumberg and Dwaraki, 1980).

스목(Smock, 1981)은 1960년부터 197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멕시코, 가나, 파키스탄, 필리핀 등 개도국에서 교육수준 향상 정도와 성별 교육차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네 나라간 교육수준은 크게 달랐다. 필리핀과 멕시코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나와 파키스탄보다 훨씬 높았으며 성별 교육차이도 이들 나라에서 훨씬 적었다. 필리핀의 여성들은 거의 남성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반면, 파키스탄의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이들 네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남성들과 비

교한 상대적 교육수준도 아주 낮았다. 위에서 논의한 스탠딩의 가설은 스목의 연구에 의해서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 필리핀(1965)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미시적 수준에서 볼 때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는 선형적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교육수준이 낮은 파키스탄(1969)과 가나(1970)에서도 발견된다. 멕시코에서는 이 둘간에 강한 선형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국가를 배경으로 한 유세프(Youssef, 1974)의 연구도 스탠딩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 정도가 특별히 여성집단의 전반적 교육수준이나 성별 교육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집트(1963), 시리아(1961), 터키(1969)와 비교해서 칠레(1964), 콜롬비아(1967)의 교육수준은 훨씬 높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해서 이 세 중동국가에서 성별 교육차도 크다. 그러나 스탠딩의 예상과는 달리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는 오히려 이들 중동국가에서 선형적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4)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교육수준과 비농업부문에서 여성노동 참여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Boserup, 1970; Youssef, 1974) 위의 선형적 정의 관계는 다소 놀랍다. 외견상 모순된 것 같은 위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중동여성들이 특정의 전문직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Boserup, 1970). 중동에서 여성들의 직업분포는 여성에 대한 보수적 사회통제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중동국가의 경우 여타의 국가에서는 흔히 여성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공장, 판매, 사무직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할 경우 가족 외의 다른 남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위의 경우의 직업을 선택하려는 것을 사회적으로 규제한다. 여성이 이러한 규범을 어길 경우 그의 가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힌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의사(산부인과, 소아과), 교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적 직업을 추구할 수 있다(Boserup, 1970; Youssef, 1974). 단 이러한 전문직종에서 여성들이 접촉하게 되는 상대는 여성이거나 어린이로 제한된다. 이러한 전문직에 여성이 몰리는 현상은 여성을 남성과 격리(female seclusion) 시키려는 사회적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수의 전문직종 중에서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선택범위를 다시 제한함으로써 대다수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을 남성 전문직 종사자나 남성 고객과 철저히 격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서 다수의 여성 고객이 남성 전문직 종사자들과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또한 막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격리관행 덕분에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쉽사리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는 이 여성격리 관행으로 도시거주지역의 저학력 여성들이 취업하기란 아주 어렵다. 요약하면, 1960년대 중동지역에서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 선행적 정의 관계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사회적 통제를 매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수준별로 제공되는 취업기회의 정도가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사회적 통제로 여성들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게 된다. 여성들은 남성 가구원들의 법적·경제적 보호하에 있으며 가정 외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Youssef, 1974). 이 지역에서는 위신이 낮은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며 사람들은 배우자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사회통제는 중동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선진국들의 과거 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초기 산업화 시기에서도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Oppenheimer, 1969; Smuts, 1959; Smelser, 1991: 232).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여성을 위한 고용기회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서 변화해 갔다.

5) 개도국에서 취업기회의 부족과 노동력의 과잉공급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만으로는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정(正)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이 만연되었을 때 여성의 교육은 경제적 자산이기보다는 문화적 자

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국가의 경우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여성이 비농업부문에서 일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통념은 점차 호의적인 것으로 변해 갔다.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무엇인가? 여성노동력 수요에 대한 급격한 증가가 그 중요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로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도 무너져 갔다. 여성노동력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없이 미시적 수준의 여성 교육수준 향상이나 출산력 감소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킬 수 없다.

개도국에서는 급격한 인구성장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량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비육체노동직에서 일할 기회의 증가가 교육이 여성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도국의 노동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노동력의 과잉공급이다(Smock, 1981; Standing, 1982). 이 노동력 과잉공급 현상은 대개 급격한 인구성장에 비해서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가 너무나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야기된다. 노동공급이 과잉일 경우에 고용기회의 우선권은 남성에게 주어진다. 많은 개도국의 경우 남성들이 비서직, 사무직, 초등학교 교사직, 판매소매직에서 다수를 차지한다(Boserup, 1970; Smock, 1981). 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직업들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남성의 노동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 고용기회가 쉽사리 주어질 것을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수준 향상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고용기회를 크게 증진시키지 못한다. 여성을 위한 비육체노동직의 증가를 통해서만 교육받은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Standing, 1974). 20세기 들어 미국의 경우를 보면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왔다. 이에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여성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하게 되었다(Oppenheimer, 1969; Standing, 1976).

6) 선진국 경험으로부터 교훈

선진국의 과거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는 현재 개도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보다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Standing, 1976). 그러나 비육체노

동직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유형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비육체노동직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 여성 노동수요에 대한 증가로 이어졌다. 이들 나라에서는 1940년대까지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되어 있었다(Smuts, 1959; Jephcott, 1962). 이러한 차별은 기혼여성들이 일을 할 경우 남성의 직업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고 가사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리라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다(Smuts, 1959; Jephcott, 1962). 그러나 기혼여성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존재했다. 기혼여성이 가계빈곤을 이유로 일을 할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호되게 비판을 가했다(Smuts, 1959; Jephcott, 1962).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학력별 여성노동력 구성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잣대로 저학력 여성들이 전체 여성노동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계빈곤을 이유로 일하는 여성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편이고 유복하게 사는 여성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1940년대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marriage bar)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Oppenheimer, 1969; Jephcott, 1962). 이러한 변화의 주된 동인은 여성노동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비육체노동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Oppenheimer, 1969). 기술과 관료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였고 그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졌다(England and Farkas, 1986: 148; Ruggie, 1984). 가장 주목할 만한 고용기회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사무직과 같은 화이트칼라직에서 이루어졌다. 단순육체노동직과는 달리 비육체노동직에서는 노동자의 교육적 자질이 아주 중요하게 간주되었다(Anker and Hein, 1986). 특히 전문 사무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급속한 비육체노동직의 증가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요의 창출은 그 이전 미혼여성으로 주로 충원되었던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력 공급부족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제 기혼여성은 새로운 노동공급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40년대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서 주된 변화 중 하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이 대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었다(England and Farkas, 1986; Jephcott, 1962; Oppenheimer, 1969; Sweet, 1973; Waite, 1976).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특히 비육체노동직에서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의 완화는 여성교육과 취업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육체노동직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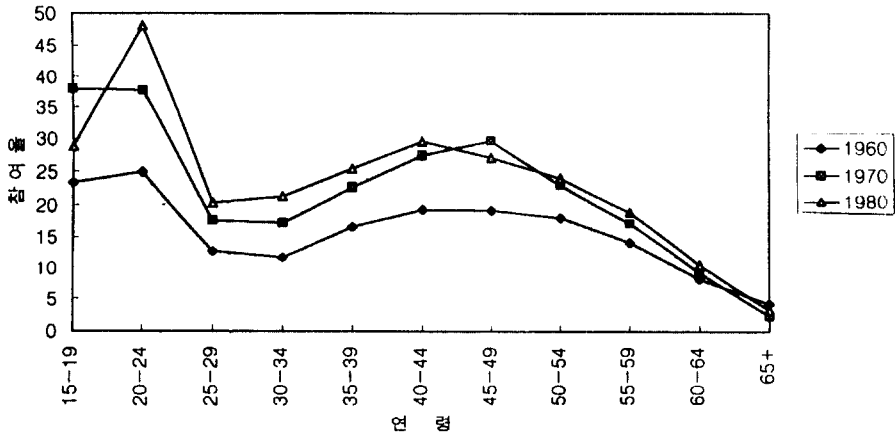
가와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어 가면서 여성교육과 취업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요약하면 교육받은 여성들이 대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은 그들을 위한 고용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이 고용기회를 창출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Oppenheimer, 1969).

3.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여성의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한국여성들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표4〉 참조). 일하는 여성에만 한정하였을 경우, 한국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높은 것으로 밝혀진다.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대학교육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은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 크다(〈표3〉 참조).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별 임금차는 남성집단에서보다 여성집단에서 더 크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표4〉 참조).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들보다 적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보다 노동시장에 덜 참여하는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주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여타 개도국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왜 한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가? 이것에 답하기 전에 우선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전체적 양상을 검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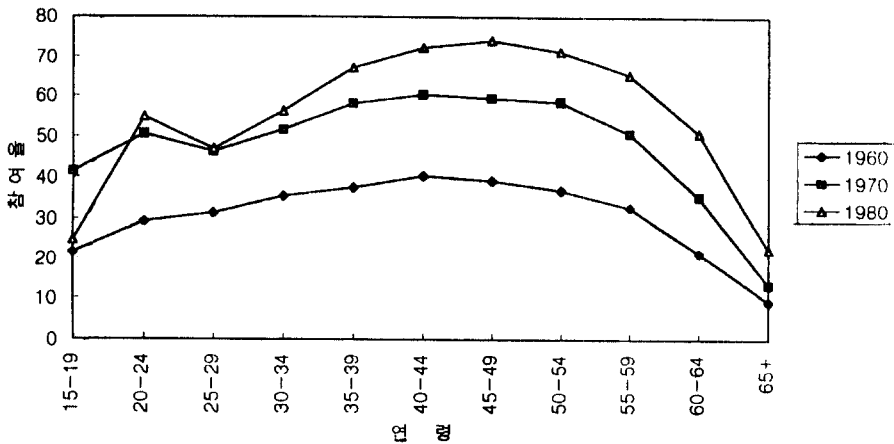
1) 한국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의 나이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그림1〉과 〈그림2〉 참조). 농촌지역과는 달리 도시지역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결혼여부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을 살펴볼 때, 기혼여성과의 비교하여 미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료: Park (1990: 68-9); <표2-8>.

〈그림1〉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한국도시여성(1960~1980)



자료: Park (1990: 68-69); <표2-8>.

〈그림2〉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1960~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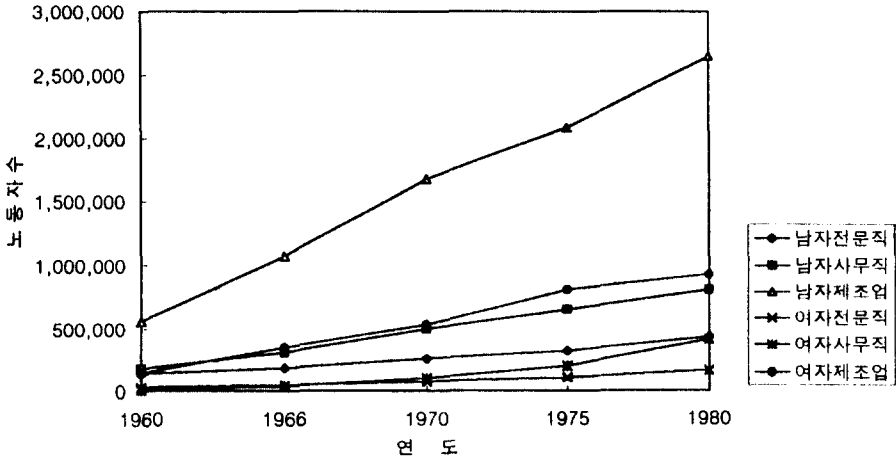
도시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위의 기간 동안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1〉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도시지역 여성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결혼여부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다. 농촌지역에서는 기혼여성이 오히려

더 많이 일하는 편이며,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에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위 기간 동안 도시 미혼여성과 농촌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남성들은 대거 농업부문으로부터 제조·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해 간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버리고 간 농업부문을 채워갔다(〈그림3〉과 〈그림4〉 참조). 미혼여성 노동력 수요에 대한 비농업부문에서 증가는 주로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했다(〈그림4〉 참조). 한국 여성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한국의 교육수준별 여성노동시장 참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농업부문의 일은 특별히 교육적 자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일에 관해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도시여성들에 국한하여 논의하겠다. 1960년부터 1980년의 기간 각각의 교육수준에서 도시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해 왔다(〈표5〉 참조).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특히 중졸, 고졸, 초급대졸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여성노동에 대한 교육수준별 수요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60년부터 제조업 사무직부문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그림4〉 참조). 공장의 일은 국졸·중졸 여성들에게, 사무실의 일은 고졸이나 초급대졸 여성들에게 각각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여성을 위한 많은 초급대에서는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초급대 졸업자들은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제조업이나 사무직의 취업기회는 대개 미혼여성을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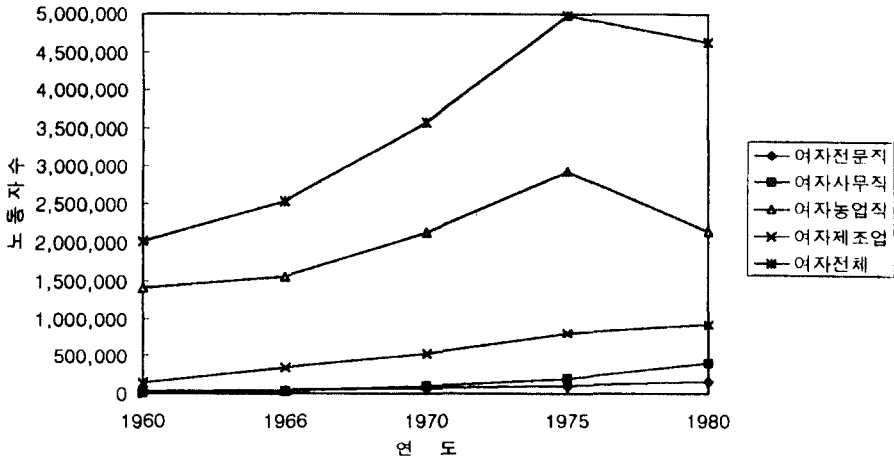
산업화 진전에 따라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등교육이 노동시장 참여에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5〉 참조). 따라서 위에서 논의된 기간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국여성의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그들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Bai and Cho, 1995; 김영화, 1988: 113; 김수곤·심경옥, 1984: 80; 이주호, 1995; Park, 1990).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노동시장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장 덜 일하는 편이다(〈표5〉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여타의 개도국과 비교해 아주 특이하다. 여타 개도국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보다 덜 교육받은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표4〉 참조). 한국 도시 기혼여성을 근거로 한 다변량분석에서, 교육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Brinton et al., 1995: 1117; Shin,

1990).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Shin, 1990). 왜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타의 개도국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가? 이제부터 교육수준별 한국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특이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수급의 양상을 검토해 보겠다.



자료: 김수곤·심경옥(1984: 23-5); <표2-1>.

(그림3) 비농업부문 특정직업에서의 성별 노동자 수의 증가(1960~1980)



자료: 김수곤·심경옥(1984: 23-5).

(그림4) 특정직업에서의 여성노동자 수의 증가(1960~1980)

〈표5〉 한국여성의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 15~64세(1960~1980) (단위: %)

교육수준	도시 ^a			농촌 ^b			전국 ^c
	1960	1970	1980	1960	1970	1980	1980
무교육	20.6	27.7	25.7	36.0	57.0	71.0	42.6
초등학교	19.7	30.7	31.1	26.9	51.3	65.3	48.2
중학교	11.5	27.1	28.8	14.7	32.8	36.7	38.0
고등학교	10.3	19.1	27.4	23.4	29.3	26.1	41.0
초급대학	10.0	25.1	39.5	34.2	62.8	55.7	°
대학교	17.2	18.9	23.2	^d	42.2	38.6	41.5

자료: ^{a, b} Park(1990: 119).

^c 김수곤·심경옥(1984: 84).

주: ^d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거의 없음을 나타냄.

^e 초급대와 대학교가 같이 분류되어 있음.

2)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근원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농업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부터 1980년의 기간에도 농업인구는 전체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김수곤·심경옥, 1984: 〈그림4〉 참조). 이 기간 농업은 점차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경제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더 중요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었다. 여성 농업노동인구는 1975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남성 농업노동인구는 위의 전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해 갔다. 한국남성들이 비농업부문의 직장을 찾아서 떠나가고 비워 놓은 자리를 여성들이 메워감에 따라서 여성 농업노동인구가 증가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위 기간 전체여성 노동력인구의 가장 많은 비율은 농업관련 부문에 종사했다(〈그림4〉 참조). 여성 농업노동인구가 전체 여성노동인구 중 다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된다(〈표5〉 참조). 다시 말하면 이는 농업·비농업부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여성노동인구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농업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그림4〉 참조). 1960년부터 1980년의 기간 제조업부문의 여성노동인구는 무려 7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취업기회는 주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서 제공되었다(Park, 1988). 수출지향적 산업체에서 여성노동자의 수는 남성노동자의 수를 능가했다(Park, 1988). 이런 산업에서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 선호되었고, 이 소녀들이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했다(Bai and Cho, 1995; Koo, 1987). 예를 들어,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공장노동자에 관한 1977년의 한 조사연구를 보면, 이들 중 66% 가량의 여성들이 17세에서 21세 연령범위에 속했고, 94%의 여성들이 25세 이하라고 밝혀졌다(Koo, 1987). 그리고 그들 중 98%가 미혼이었다. 이들 여성 공장노동자의 88%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공장노동에 필요한 교육의 수준이 아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도시·농촌 공히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의 기회가 풍부했다는 것이다(〈그림4〉 참조). 위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수요의 측면이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과 결혼에 따른 여성의 직업분포

왜 한국에서는 1940년 이후 미국에서와 같이 제조업과 사무직에서 수요의 증가가 도시 기혼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왔는가?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미약한 교육효과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사직 압력을 받는다(Choi, 1994). 이러한 부류의 일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한다. 1960년부터 1980년의 기간 동안 도시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1〉 참조).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교육받은 도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낮게 나타났다(이주호, 1995). 1980년대 초 공공기관과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응답기관의 73%에서 여성이 사무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hoi, 1994). 또한 이들 응답기관의 51%가 여성이 전문직에서 일할 경우 미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혼여성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가사부담으로 인하여 그들의 업무추진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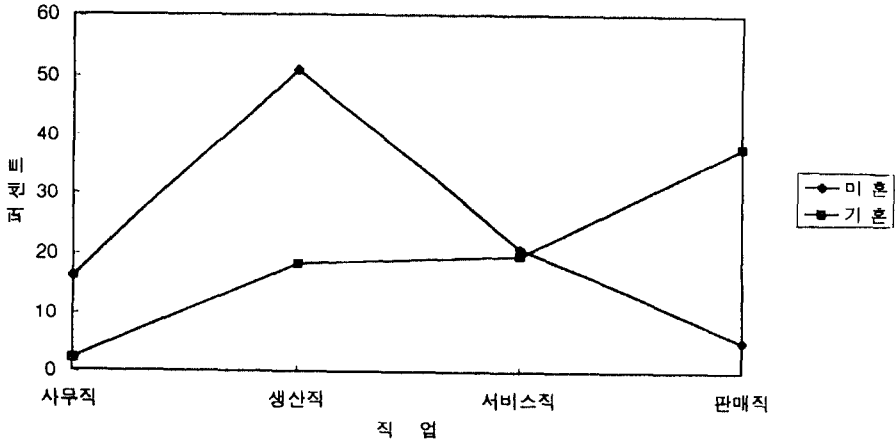
고용주들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경우 여성들의 작업범위를 제한하고 남성과는 다른 종류의 일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혼여성으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 전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기간을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4)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도시 기혼여성의 노동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일했던 대부분의 미혼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탈퇴해야 한다. 단지 소수의 기혼여성들만이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대다수 여성들이 결혼 후에는 피고용자로서의 노동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oon, 1982). 결혼을 한 후에 여성들은 사무직이나 공장일보다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그림5>, <그림6> 참조; Choi, 1994; Moon, 1982).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있는 대다수 기혼여성들은 자영업자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이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또는 결혼 후 일을 재개하는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주로 무급가족종사자, 가내수공업종사자, 판매·서비스종사자 세 가지 유형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Choi, 1994). 이런 유에 속하는 일의 특성을 보면 일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매우 낮고 지위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도시비공식부문에 속한다(Choi, 1994; Merrick, 1976; Moon, 1982). 공식부문의 경우는 노동시장 진입이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의 경우에는 그 진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Merrick, 1976). 개도국의 도시지역의 과잉노동은 이러한 비공식부문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Merrick, 1976; Standing,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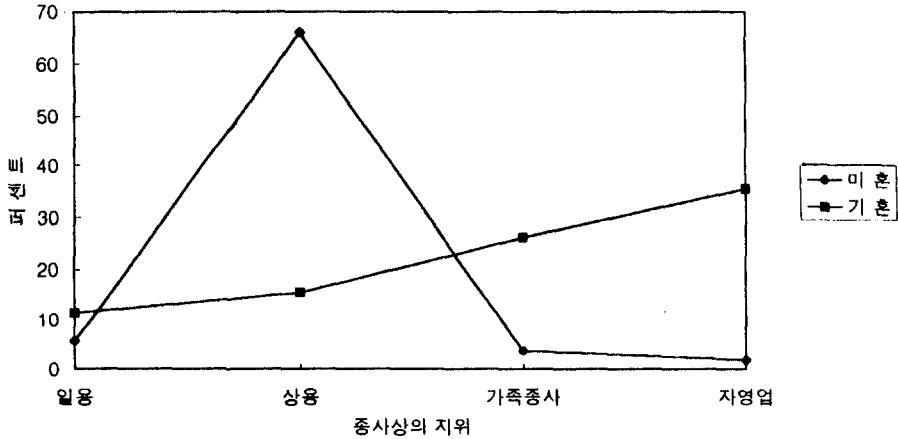
5)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과잉공급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른 나라에도 있어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그 차별은 점차 완화되었고 기혼여성들은 대거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을 볼 때,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고학력 남



자료: Moon (1982: 42).

〈그림5〉 혼인상태별 직업분포, 한국도시여성(1975)



〈그림6〉 혼인상태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한국도시여성(1975)

성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쉽사리 누그러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Brinton et al., 1995; Ruggie, 1984). 한국에서 평균 교육수준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Brinton et al., 1995; Park, 1988; Shin, 1990; 윤희란, 1988). 특히 한국남성의

경우 대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Brinton et al., 1995; Shin, 1990).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해 돌아오는 경제적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윤혜란, 1988).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았을 때 얻는 경제적 보상은 상당히 크다(표1 참조).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은 아주 강하다. 매년 대학입시의 경쟁은 아주 치열해 왔고, 남성의 경우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경우에 재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1970년부터 1980년 기간중 대학입시를 위해 재수하는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 흔한 일이었다. 예를 들면 동기간에 매년 재수생들은 전체 대입지원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Shin, 1990).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은 한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 한 가지 결과는 전체적인 저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졸업자들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Kim, 1989). 1950년대부터 대학교육을 받은 남성들의 실업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Shin, 1996). 1950년대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직업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 1960년대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는 풍부했던 반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취업의 기회는 드물었다. 1970년대에 와서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취업의 기회가 다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기회확대로 이들의 취업전망은 다시 악화되었다(Brinton et al., 1995; Kim, 1989: 256).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전망 역시 밝지 않았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대졸자의 수는 항상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여성노동수요를 초과했다(Kim, 1989).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기회확대로 말미암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폭증하였다(Brinton et al., 1995). 따라서,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노동력의 부족현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한,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4.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 여성교육의 경제적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거시적

요인들을 다양하게 검토했다. 이 논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여성 전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은 미시적 수준의 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미시수준의 이론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교육의 경제적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노동시장 여건이 미시이론이 잘 적용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여성교육의 경제적 보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여건 중 하나는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고학력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와 고학력 남성노동의 공급간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좀더 두드러지므로 만일 그것이 완화되면 고학력 여성들은 대거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상태에서야 교육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미시적 이론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곤·심경옥(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화(1988),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과 남녀 임금 불평등”, 《여성연구》 6(2): 108-151.
- 이주호(1995), “여성인력의 수급과 개발”,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강화〉, 발표 논문, 여성개발원 주최.
- 윤혜란(1988), “학력이 직업기회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970년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력 수급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Angulo, Alejandro and Cecilia L. De Rodriguez(1978),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in Colombia”,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Low-Income Countries*, edited by Guy Standing and Glen Sheehan, Geneva: International Labor Office, pp. 17-26.
- Anker, Richard and Catherine Hein(1986),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Sex Inequalities in Urban Employment in the Third World*, edited by R. Anker and C. Hein,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62.
- Bai, Moo Ki and Woo Hyun Cho(1995), *Women's Wages and Employment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Blumberg, Rhoda Lois and Leela Dwaraki(1980), *India's Educated Women: Options and Constraints*, Delhi: Hindustan Publishing Corporation.
- Boserup, Ester(1970),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London: Allen and Unwin.
- Bowen, William G. and Aldrich T. Finegan(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inton, Mary C., Yean-Ju Lee and William L. Parish(1995), “Married Women's Employment in Rapidly Industrializing Societies: Examples from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5): 1099-1130.
- Cain, Glen G. (1966),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An Economic Analysi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i, Moonkyung(1994), “Lifetime Occupational Achievement of Female Workers: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 Chicago.
- Collins, Randall(1979), *The Credential Society: A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Dore, Ronald(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 England, Paula and George Farkas(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A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iew*, New York: Aldine.
- Fong, Pang Eng(1978), "Labour Force Growth, Utilization, and Determinants in Singapore",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Low-Income Countries*, edited by Guy Standing and Glen Sheeha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p.215-234.
- Fuller, Bruce and Richard Rubinson(1992), "Does the State Expand Schooling?: Review of the Evidence", in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Education: The State, School Expansion, and Economic Change*, edited by B. Fuller and Richard Rubinson, New York: Praeger, pp.2-28.
- Goldin, Claudia(1992), "The Meaning of College in the Lives of American Women: The Past One-Hundred Years", Working Paper No. 409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ephcott, Pearl(1962), *Married Women Working*,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Kim, Gyu-Won(1989), Unemployment among the Educated in South Korea: A Consequence of Export-Led Growth Policie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Koo, Hagen(1987), "Women Factory Workers in Korea", in *Korean Women in Transition: At Home and Abroad*, edited by Eui-Young Yu and Earl H. Phillips, Los Angeles: 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pp.103-112.
- Merrick, Thomas W. (1976), "Employment and Earnings in the Informal Sector in Brazil: The Case of Belo Horizont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10: 337-54.
- Moon, Uhn Cho(1982), *Married Women and Urban Employment in Korea: Class Differentiation in Income Opportunitie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Oppenheimer, Valerie Kincade(1969),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Governing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ition*,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Park, Se-Il(1988), "Labor Issues in Korea's Future", *World Development* 16(1): 99-118.

- Park, Young Jin(1990),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Trends in Levels, Patterns, and Differentials during 1960-1980*,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echt, Waldomiro(1978),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Urban Labour Market in Selected Latin American Countries: Chile, Costa Rica, Ecuador, and Venezuela",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Low-Income Countries*, edited by Guy Standing and Glen Sheeha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p.27-42.
- Psacharopoulos, George(1985), "Returns to Education: A Further International Updat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4): 583-604.
- Ruggie, Navy(1984), *The State and Working Women: a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and Swede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Ho Hyun(1990), *A Study on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Smelser, Neil J. (1991), *Social Paralysis and Social Change: British Working-Class Educ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ock, Audrey C. (1981), *Women's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Praeger.
- Smuts, Robert W. (1959), *Women and Work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tanding, Guy(1976), "Education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ternational Labor Review* 114(3): 281-97.
- _____ (1982),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Sweet, James A. (1973), *Women in the Labor Force*, New York: Seminar Press.
- Tsurumi, E. Patricia(1977),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Taiwan, 1895-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inerman, Catalina H. (1982), "The Impact of Education on the Female Labor Force in Argentina, and Paraguay", in *Women's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edited by Gail P. Kelly and Carolyn M. Ellio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265-279.
- Waite, Linda J. (1976), "Working Wives: 1940-196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65-80.
- Walters, Pamela B. and Phillip J. O'Connell(1988), "The Family Economy, Work, and

- Education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1980-194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1116-52.
- Warner, W. Lloyd, Robert J. Havighurst and Martin B. Loeb(1994), *Who Shall be Educated?: The Challenge of Unequal Opportunitie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Woodhall, Maureen(1973), "Investment in Women: A Reappraisal of the Concept of Human Capital",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19: 9-29.
- Youssef, Nadia Haggag(1974), *Women and Work in Developing Societies*, Westport, CN: Greenwood Press.

abstract

Under-Utilization of Women's Education in Korean Labor Market: A Macro-Level Explanation

Mi-Jung Lee

Under-utilization of Korean women's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observed and pointed out as a waste of valuable human resources. Although education provides women with positive returns when they work, it has been found that Korean women's education is not much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is tendency cannot be explained by micro-economic theory, which says that educated women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Thus, in this analysis, a macro-level explanation is attempted to understand Korean women's economic behaviors in relation to education.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 has provided ample job opportunities mostly for less educated women. On the other hand, increasing demand for educated female labor has been moderate. Various restrictions against women, especially married women, have prevailed in the Korean labor market. Restrictions against women and the marriage bar tend to be selectively applied to decent white-collar jobs, mostly affecting educated women. Furthermore, there has been no shortage of educated male labor due to its adequate supply. Since Korean women spend most of their adult lives in marriage, married women's low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low economic returns to women's education throughout their lifetime. Restriction against married women in the labor market also existed in the pas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reat Britain. Howeve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married women in great numbers flowed into non-manual jobs. The post-1940 increase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in those countries can be understood to be a result of a labor shortage for non manual jobs. Also in

Taiwan, which shares many common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with Korea, the marriage bar has been in decline since the late 1970s, along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female labor in the service sector. In sum, the changes in the demand structure and the supply of educated male labor force will contribute to the lift of the marriage bar in Korea.

